

폰타네의 작품에 나타난 간통과 정체성*

박대환**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19세기와 간통
3. 여성과 자기결정권
4. 간통의 원인과 결과
5. 간통과 상징 그리고 정체성
6. 나가는 말

<국문초록>

테오도르 폰타네(1819-1898)는 약사의 아들로 태어나 기자생활을 하다가 뒤늦게 작가로 전업하여 76세 때 간통사건을 다룬 소설 <에피 브리스트>를 쓸 정도로 그는 주로 여성들의 삶에 대한 권태로움을 간통 소설을 통해 형상화하면서 19세기 후반의 가치체계와 도덕 체계를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이런 점을 고려하여 여성의 간통은 생물학적 측면이 아닌 당시의 사회적인 현상과 관련이 있고, 여성의 간통은 단순한 성욕의 차원을 넘어 사회에서 일탈하는 여성들의 적극적 행동을 통해 현실에 순응하지 않고 저항함으로써 자기들의 자아 구현을 위해 즉 정체성 추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규명하고자 했다.

여성들은 자기들의 파트너와의 의사소통 부족이나 배려심 부족으로 인해 좁은 공간에서 뛰쳐나와 체념하지 않고 노력하여 마침내 성공적으로 사회에 재진입하고 있다. 여성들은 간통을 통해 남성 욕망의 신비화된 궁극적 대상으로 몰신화한 사회에 저항하면서 새로운 자아를 찾아 나선다.

이런 점에서 폰타네는 그 당시 보기 드문 '진보적인 작가' 라고 할 수 있다.

* 이 논문은 2019년 조선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조선대학교 독일어문화학과 교수

주제어: 간통, 자아구현, 자기결정권, 정체성

1. 들어가는 말

19세기 시적 사실주의(詩的 寫實主義) 작가군에 속한 테오도어 폰타네(Theodor Fontane)는 약사의 아들로 태어나, 기자 생활을 하다가 뒤늦게 작가로 전업한 사람이다. 나이가 들면서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진 그는 삶에 지치고 신경이 허약한 여성들을 형상화 하면서 여성의 사랑과 삶의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다.

그는 17개의 소설 가운데 4개 소설과 그 작품들의 1/4정도분량에서 간통 문제를 중심 테마로 다루고 있다. 그는 특히 타락한 여성들과, 그 여성들의 갈등을 인간 심리학측면이 아닌 사회적 사건들과 연관을 지어 간접적으로 19세기 후반의 가치체계와 도덕체계를 비판하면서 그 스스로 그 시대의 전형적 대표자로 나타나고 있다. 때문에 그는 사회 비평적 소설의 거장이자 아주 인상깊은 사실적인 여성 인물들의 세밀한 묘사자로 평가받고 있기도 하다.¹⁾

그는 어디까지나 쇼펜하우어와 바이닝어의 여성적대적인 표현에 반대하고, 그뤼하겐(Grünhagen)에게 보낸 편지에서 ‘여성을 아주 자연적인 존재²⁾’로 여기고 있다고 할 정도로 여성 친화적인 입장을 지니고 있다. 폰타네는 작품들과 편지들 그리고 서평에서 반복해서 고백조로 여성들과 관련 하여, 자기가 사실 문학작품을 쓸 때 여성들에게서 깊은 영감을 받아, 그들을 형상화 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을 정도로 그는 여성 예찬론자이다.

따라서 필자는 여성인물들의 간통문제를 다룬 그의 소설들은 그가 살았

1) Inge Stephan: Das Natürliche hat es mir seit langem angetan. Zum Verhältnis von Frau und Natur im Fontanes Cecile. In: Natur und Natürlichkeit. Hrsg. Reinhold Grimm / Jost Hermand. Athenäum 1981. S.118.

2) Gottfried Erler: Fontanes Briefe. Berlin und Weimar Bd.2. 1968. S.382.

던 시대의 반영물이란 점을 감안하여, 우선 전체적으로 여성의 간통은 생물학적 측면이 아닌 당시의 사회적 측면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개체는 사회적 규범과 자신의 책임 사이에서 정체성 확보를 위해 그 갈등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마지막으로 또 간통을 통해 집단과 대결하면서 개체가 자기 정체성을 찾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를 구명(究明)하고자 한다.

2. 19세기와 간통

19세기 당시 부부생활에서 일반적으로 속은 남편보다는 간통을 한 부인의 문제가 소설의 테마가 되어 소설에서 타락한 여성의 문제가 중심에 서 있는 경우가 많다. 여성의 간통에 관용적이지 않았던 19세기에 간통소설은 18세기의 교양 소설처럼 동일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보다 더 개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결혼은 더 이상 교회의 전유물이 아니라 세속적인 법적인 일로 변화하면서 결혼은 가부장적 권위주의적 사고와 수동적 사고에 의해 결정되었다.³⁾ 당시 사회적으로 통용된 인습적인 결혼의 현실은 중세 이래에 도덕론적 담론에 부합되어야 했다. 열정은 결혼생활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종교학자 히어노이무스의 주장은 큰 호응을 받아 심지어 결혼생활 중 부부간의 열정적인 사랑은 간통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인식되었다.⁴⁾

이 당시 사회상과 관련하여 볼케는 “이성적인 남자는 자기 부인을 절제된 마음으로 사랑해야지 열정적으로 사랑해서는 안 된다. 자기 부인에 대한

3) Peter Borscheid: Geld oder Liebe.: Zu den Auswirkungen des Romantischen auf die Partnerwahl im 19. Jahrhundert. In: Ehe, Liebe, Tod. (Hrsg.) Peter Borscheid und Hans Teuteberg Münster 1983. S.120.

4) Vgl. Philippe Ariès/Andre Bejin(Hrsg.): Die Masken des Begehrens und die Metamorphosen der Sinnlichkeit. Frankfurt/M. 1986. S.149.

불타는 사랑은 간통을 한 사랑과 마찬가지로이다. 자기 부인을 정부(情夫)처럼 열정적으로 사랑한 것은 창피한 일이다. 남편은 자기 부인을 애인처럼 대해서는 안 되고 정숙한 부인으로 대해야 했다⁵⁾”고 주장하고 있다. 교회 이론에 따라 섹스는 결혼한 부부에게 합법적인 종족 보존을 위한 수단으로서 결혼 생활에서 부부는 간통을 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의무였다. 다시 말해 19세기 후반에 결혼생활에서 부부간의 열정적인 사랑을 죄악시 하는 이런 분위기와 또 한편 사랑의 헌신을 의무로 간주한 생각이 혼재했다.

무엇보다 빌헬름(Wilhelm) 황제 시대에 여성의 법적 지위는 1794년 6월 1일에 공포된 ‘일반 프로이센법’에 의하면 여성에 비해 남성에게 우월한 지위를 부여하고 있었다. 이 법에 의하면 결혼은 가부장적 계약관계로서 부인의 법적지위는 남편의 가부장적 권위에 의하여 결정되었다. 남편의 역할은 가정사의 주요 결정에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고, 부인은 가사노동에만 한정시켰다⁶⁾. 자식의 교육에서도 어머니 보다는 아버지가 우선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사회분위기를 반영하여 1865년판 브록하우스(Brockhaus)사전에는 남녀의 특성을 언급하면서 “여성들은 도덕에 충실하고 수줍음의 특성을 지니고 있고, 남성들은 법, 명예를 중시한 사람들로서 행동이나 치료사 같은 직업에 종사하고, 여성들은 인내심, 수용, 그리고 아이의 출산에 강하다⁷⁾”라고 설명하고 있다.

당시 미혼 여성이 결혼할 때 아버지의 권위에 의해 결혼여부가 결정되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부부간의 간통, 이혼과 관련해서도 남편이 우선권을 가졌다. 여성의 간통은 남편에 의해 이혼사유가 되었다. 남편은 간통으로 인한 이혼 때도 처벌받지 않았고 여성의 간통은 ‘규범과괴’, ‘법률위반’, 그리

5) Joachim Bumke: Höfische Kultur, Literatur und Gesellschaft im hohen Mittelalter. München 1990. S.530.

6) Allgemeines Landrecht für die Preußischen Staaten mit Erläuterungen von Rehbein und O.Reincke. 4.Bd., Berlin 1894.

7) Allgemeine deutsche Real-Encyclopädie für die gebildeten Stände. Brockhaus. Leipzig 1865. S.553.

고 ‘종교적 계율 위반’으로 간주되었다.

뿐만 아니라 간통으로 인한 이혼 때 부인은 자식들에 대한 권리나 재산권 행사도 제한되었고, 그녀의 사회적 체면도 많이 손상되었다.

부부가 똑같이 간통을 하더라도 부인에게 불이익이 주어졌는데 이 경우 남편은 이혼을 요구할 수 있었지만 부인은 그런 권리가 없었다. 부인은 심지어 자기 남편의 직장에서 보수 없이 일해야 했고, 남편의 허락을 받은 후에 비로소 독자적인 직업을 선택 할 수 있었다.

자기 부인의 부양의무는 전적으로 남편이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불평등 법에도 불구하고 ‘일반 프로이센법’은 여성 친화적 특성 즉 남편의 부재 시에 여성이 재산관리를 할 수 있게 하거나 남편의 간통 시 이혼도 제기할 수 있는 조항도 법제화 되었다. 하지만, 1842년 프로이센 법무부장관인 쇼비니는 ‘이혼은 남녀동등한 권리가 전제되어야 하고 심지어 남편보다 부인이 보다 더 많은 이점이 있어야 된다⁸⁾’라는 파격적인 주장을 하면서 자기가 볼 때 이혼의 3/4은 간통에 기인하고, 합의 이혼은 1/5 정도라고 덧붙이면서 간통으로 인해 여성이 처벌을 받은 것은 불평등하기 때문에, 이런 법은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의 주장에 힘입어 자유주의와 산업화의 물결과 함께 비독립과 복종이 당연시 되던 19세기 여성의 위치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런 산업화의 물결 속에서 19세기에 여성상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던 주요 이유중 하나가 여성운동의 발현이었다. 이제 여성은 과거처럼 더 이상 가사노동에 전념한 것이 아니라 사회활동도 가능해졌다. 여성들이 가정에서 오직 자식 교육에 전념했던 것에서 벗어나면서 그들에게 자긍심과 독립심이 생겨났다. 무엇보다 시민적 자유와 평등 그리고 기회균등을 위한 투쟁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여, 200년간 지속된 봉건적 사고 방식에 변화가 일어난 결과, 지금까지 금기시 된 ‘타락한 여성’의 모티브가 등장하였다. 이때 독일에서는

8) Friedrich Carl von Savigny: Vermischte Schrifte. Bd.5. Berlin 1850. S.283.

시민적 결혼과 교회결혼의 분리가 이슈화 되었는데, 시민적 결혼은 교회의 계율에 복종한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법 상식에 따르는 것이 관례였다. 따라서 간통은 죽을죄가 아니라 계약위반이라고 하는 법적 관점에서 이해되었다. 19세기의 서민 결혼은 일반적으로 사랑해서 한 결혼이라기보다는 신분상승을 위한 목적 결혼이 이루어지는 추세 속에서 여성들은 결혼생활의 권태로움과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즉 일상 탈출에서 뛰쳐나가기 위해 간통을 하는 사회분위기가 서서히 형성되었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된 배경은 프랑스 혁명 이후에 윌스톤크래프트(Wollstoncraft)가 남성이 여성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여성의 자아실현을 강조하고, 또 피히테(Fichte)가 남녀평등을 주장하면서 여성들에게 순종보다는 자긍심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에서 기인한다.

3. 여성과 자기결정권

폰타네는 자기의 작품들에서 많은 여성 인물들을 그리고 있는데, 그의 작품에서 특이한 점은 여성 주인공들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복잡한 특성을 지닌 인물들의 모습으로 등장한 것이다. 그래서 그는 “여성들의 작가”로 불리기도 한다. 빌헬름 프로이센 시대의 작가인 폰타네에게 여성은 다양한 역할 즉 부인, 어머니, 연인 또는 남성의 성적 투사물로 나타나고 있다. 개체가 사회적 결정과 자신의 책임 사이에서 갈등을 느낄 때, 규범, 인습, 그리고 도덕관과 충돌하게 된다. 왜냐하면 여성에게 이런 갈등은 남성에서 보다는 더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폰타네의 두 작품 <세실>과 <간통녀>에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비교적 잘 나타나고 있다. 소설 <세실>(1887) 역시 그의 주요작품은 아니지만 그의 여성상을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남성 중심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적 규범의 울타리가 강조된 현실을 목도한 폰타

네에게 여성인물들의 개인의 결정권은 무시되고 있는 사회적 관계가 그의 주요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일각에서는 폰타네가 “프로이센 시스템”을 좋아하고 있다⁹⁾고 해석하고 있지만, 이는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큰 틀에서 볼 때 개체와 사회의 대립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간주했던 폰타네는 당시의 남성중심 이데올로기에 회의적이었기 때문이다.

남성의 가부장적 태도에서 벗어나기 위한 여성의 독립의지로 인해서 생긴 남녀대립관계에서 남성들이 세실을 ‘요부’로 만들려고 하지만 그녀는 실제 요부는 아니고, 요부와 성녀의 경계선을 넘지 않고 있는데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그녀가 “나는 책임을 통감한다. 만일 내가 나의 전 생애 동안 공허함에 매몰된다면 나는 절제심도 잃게 될 것이다. 나는 고통과 경계를 두고 거리를 두어야겠다¹⁰⁾”고 말한 데서 보듯, 그녀는 언뜻 보면 요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남성들과 거리를 두려고 하면서 자기 의지에 따라 그 경계선을 넘지 않고 있다. 슈테판은 이를 두고 ‘그녀의 요부적 특성¹¹⁾’을 더 강조하고 있지만 이런 해석은 잘못 된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결정권이 있는 그녀는 요부가 아닌데도 남성들이 자기들의 환상에서 그녀를 그렇게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남성들은 자의적으로 그녀를 요부로 만들어 그녀의 의지와 상관없이 남성들이 에로틱한 환상에 젖어 그녀가 요부라고 생각하고 있을 뿐이다.

남성 중심 사회에 살고 있는 세상에서, 언뜻 여성들은 일종의 자기결정권이 없는 남성의 과시물로 나타난 듯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그 반대로 여성이 남성에게 용기와 격려를 해준 결정권이 있는 인물로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세실은 남편이 독선적이고 이기적이고, 또 아름다운 여인을 소유한

9) Klaus Matthias: Theodor Fontane – Skepsis und Güte. In: Jahrbuch des Freien Deutschen Hochstifts. 1973. S.373.

10) Theodor Fontane: Romane und Erzählungen und Gedichte. 2. Bd. München 1971. S.201.

11) Inge Stephan: a.a.O., S.120.

것에 대해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하고, 그녀의 남편이 변덕스럽기까지 한 것에 괴로워한다.

그래서 그녀가 “남편이 45분간 나의 손을 잡고 나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나한테 작별인사도 없이 가버렸다. 그는 자기한테 한명의 부인이 있다는 것을 3일 동안이나 잊고 지냈다¹²⁾”고 말한데서 보듯, 남편 고돈(Gordon)과 부인 세실은 결혼은 했지만, 피상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남편은 부인을 자기의 과시물이나 성적 대상으로 여기려고 한다. 때문에 세실은 그녀가 그녀 남편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 의해 관찰대상자로 인식되자 스트레스를 받아 결국 그녀에게 신경병 증상까지 나타난다.¹³⁾ 그녀는 말하자면 낯선 상, 유형화, 편견 그리고 집단적 남성 환상에 둘러싸여 그녀에게 성적 판타지를 가진 남성들의 심리적 만족감을 준 것처럼 자기가 비취진 것에 대해 거부감을 갖는다.

하지만 남성들이 그녀를 자기들의 투사물로 여기고 있다 할지라도 그녀는 남성들에게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남성들은 그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 슈테판은 이를 두고 “폰타네가 남성중심의 도덕을 비판하고는 있지만 폰타네 자신 또한 일정부분 가부장적 사고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폰타네가 갈등적 여성상을 갖고 있다¹⁴⁾”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설득력이 약하게 보인다. 왜냐하면 슈테판의 오류는 고돈의 이중적 여성상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면서 잘못된 방법으로 남성 중심적 측면에서 세실을 오직 요부적 환상으로만 분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실과 마찬가지로 소설 <간통녀>의 멜라니 에게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1931년 폰타네의 여성인물들에 관해 최초로 연구를 한 크로너(Croner)¹⁵⁾가 “폰타네 당시에 프랑스에서는 간통소설이 많이 다루어졌지

12) Theodor Fontane: a.a.O., S.280.

13) Klaudia Liebrand: Das Ich und die Anderen. Freiburg/Br. 1990. S.74.

14) Inge Stephan: a.a.O., S.139.

15) Else Croner: Fontanes Frauengestalten. Langensalza 1931. S.14.

만, 독일에서는 조금 늦게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서 보듯, 폰타네 역시 프랑스 보다는 늦게 ‘간통’이란 테마를 문학작품에서 묘사했다.

간통을 한 세실처럼 멜라니 역시 정부(情婦)와 남편 사이에 심리적 갈등을 겪는다. 그녀는 간통을 한 이후 한편으로 자기 남편과의 계약상의 재결합과 또 한편으로 자기의 정부(情婦)와의 감정적인 몰입 사이에서 심리적 갈등을 겪고 있다. 그녀는 갈등적 상황에서 확실하게 자기의 개인적 특성을 인정해 달라고 남편에게 요구한다. 그녀는 이별에 대해 한편으로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도 하고, 또 한편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하기도 한다. 사회의 인습과 계약에 따르라는 강요는 자주적 결정권이 강한 멜라니에게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 왜냐하면 그녀는 사회적으로 강요한 법이나 관습이 아니라 그녀 자신의 마음 속에 자기 잡고 있는 내면의 법에 충실하기 때문이다¹⁶⁾. 남편 곁을 떠나 정부(情婦) 루벤(Ruben)한테 다가가면서 그녀는 행복하다고 느낀다. 그녀는 자기 정부(情婦)한테 가면서 당시의 사회적 규범에서 일탈한 것에 대해 자기 결정으로 내린 판단이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다. 그녀는 “나는 이 길을 계속 하겠다. 죄책감 보다는 오히려 자긍심이 생긴다. 나 자신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것이 자랑스럽다¹⁷⁾”라고 주장하면서 자기결정권 행사에 대해 만족스러워 한다. 그러면서 그녀는 사회적 인습의 틀에서 벗어나 가부장적 시스템과도 멀어지려고 하면서 “나는 머리를 다시 높게 들고 사회를 배우고 싶다¹⁸⁾”라고 말한다.

물론 자기의 독자적 결정을 중시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녀의 결정적인 출발점은 사회로의 성공적인 재진입이다. 그녀는 이런 재사회화의 과정에서 독일의사의 충고에 따라 자기의 은둔생활을 포기하고 그녀의 내적 평온함 상실을 외적 운동을 통해서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노력을 한다. 때문에 멜라

16) Theodor Fontane : a.a.O., S.120.

17) Ibid. S.121.

18) Ibid, S.124.

니는 자기결정에 따라 행복과 자유를 찾아 나선다. 자유로운 먼 곳에 대한 동경심에서 그녀는 “너가 없는 곳에 오히려 행복이 있다¹⁹⁾”라는 자조적인 말을 하면서 행복을 동경한다. 심지어 그녀는 “눈송이의 춤을 볼 때 눈송이의 휘날리는 모습에서 아름다움이 느껴져 동정심이 엄습해왔다.²⁰⁾” 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때 눈송이의 휘날림은 사회적 신분상승과 하강을 되풀이하는 자신의 운명에 대한 암시이자 자유의 갈구에 대한 상징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래서 그녀는 스스로 자기의 길을 결정하고자 한다. 멜라니는 17세때 42세의 남편 슈트라텐(Straaten)과 결혼 했지만 늘 향수나 잃어버린 행복에 대해 동경심을 갖고서 “우리의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아무도 알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있다.²¹⁾”라고 아쉬워한다.

한편 멜라니가 간통 후 남편과 자식들 곁을 떠날 때, 그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이지만 그녀는 철저하게 그것을 이겨내려고 노력하면서 자신을 추동하기 위해 “용기, 용기²²⁾”라고 외치면서 그녀는 “나는 이제 행복하다. 정말 행복하다.²³⁾” 라고 스스로 만족스러워한다.

간통에 대해 오히려 자긍심을 갖고 있는 그녀는 동시대의 여성들에게서 찾아보기 어려운 놀라운 정도의 자의식과 용기를 지니고,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의 힘으로 뛰쳐나온다. 그녀의 이 힘은 타인의 도움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길을 스스로 찾아나서는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서 생겨나고 있다.

그녀는 정부(情婦)이자 프랑크푸르트 상인의 아들인 루벤(Ruben)한테서 자기 남편이 가지고 있지 않은 다른 면을 발견하면서 행복감을 느낀다. 루벤은 바그너를 좋아하지만 남편 슈트라텐(Straaten)은 반대로 음악이 아닌 미술에 관심이 있어서 서로 소통하기가 어렵지만 그녀는 그럼에도 남녀간에는

19) Theodor Fontane : a.a.O., S.25.

20) Theodor Fontane : a.a.O., S.15.

21) Theodor Fontane : a.a.O., S.120.

22) Theodor Fontane : a.a.O., S.130.

23) Ibid. S.21.

‘성실함이 중요하다²⁴⁾’고 여기고 독자적인 판단과 결정을 내린다. 그녀는 정부(情夫) 루벤과의 간통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적정체성을 위해 투쟁하면서 진정으로 자기가 비로소 한 여성이 됨을 느낀다. 수많은 포옹과 키스는 이에 대한 은유로 쓰이고 있다. 그녀의 사회생활은 처음에 자신이 아닌 낯선 사람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의 결정을 통해서 행위가 이루어지면서 결국 인간의 행동을 제한한 사회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폰타네가 “독자적 행위 능력을 지닌 인물 멜라니”를 통해 “도덕적 인습의 피상성, 부자연스러움, 냉정함의 정체를 예리하게 드러나게 하면서 당시 빌헬름 시대의 사회현상을 비판하기 위한 의도에서 출발한 것이다.

4. 간통의 원인과 결과

당시 프랑스 문학에서는 ‘간통’ 문제가 많이 다루어졌지만 독일에서는 흔하지 않은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폰타네는 사회적 문제를 이슈화하기 위해 간통소설을 썼다. 소설 <간통녀>의 22개장(場) 가운데 5개의 장(場)이, 소설 <에피 브리스트(Effi Briest)>의 36개 장(場) 가운데 8개의 장(場), 즉 두 작품의 1/5이 간통문제를 다루고 있다. 마르티나가 “폰타네의 주요 관심은 사회와 개체²⁵⁾”라고 주장하듯, 그는 일상속 인간을 묘사하고 있다. 이는 그의 작품에서 여성은 집단의 대표자가 아니라 개체를 위해 투쟁하는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서 확인되고 있다. 때문에 그의 여성인물들은 자기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체념한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이런 여성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과 자유 그리고 행복을 찾아 나설 때 그들은 비좁음, 손해봄, 그리고 정당성 결여에 괴로워하면

24) Helmuth Nürnberger: Theodor Fontane in Selbstzeugnissen und Bilddokumenten. Hrsg. von Kurst Kusenberg. Hamburg 1968. S.142.

25) Fritz Martini: Deutsche Literatur im bürgerlichen Realismus 1848-1898, Stuttgart 1974. S.744.

서도 이런 일상생활에서 탈출하기 위해 간통을 한다.

그의 소설에서 사회현상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여성 간통의 원인은 부부 간 정서적 연대부족과 의사소통의 부재로 인해서 생겨난 개인적인 내부갈등에 기인한다. 그의 여성인물들의 간통은 말하자면 사랑 때문이 아니라, 돈의 힘으로 신분상승을 노린 목적 결혼이 주류를 이룬 19세기의 상황과 맞물려있다. 다시 말해 여성의 간통은 19세기의 상황과 비슷하게 사랑이 아닌 인습적인 목적 지향적 결혼으로 인해서 생겨난다. 여성들은 바람(소원)과 현실과의 불일치 때문에 결혼생활에서 자신을 국외자로 느낄 때 간통을 생각하고, 배우자의 지기에 대한 부족한 배려심과 서로간의 이해부족으로 인해서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자아구현을 하기위해 답답한 가정생활에서 보다는 혼외생활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고자한다.

멜라니의 경우에서 보듯, 여성의 간통은 배우자에 의해 강요받은 역할에서 뛰쳐나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멜라니가 ‘배우자와의 정서적 연대감 결여로 인해서 지루한’ 삶을 영위해 가면서도 마음속으로 그녀는 배우자한테서 자기를 따스하게 감싸줄 수 있는 배려의 마음을 기대하지만, 그렇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녀는 간통을 통해 답답한 일상에서 뛰쳐나오려고 한다. 폰타네의 여성들의 간통은 자신이 사회에서 소외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자기 방어적 원초적 본능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여성들은 이 간통을 통해서 해방되려고 하지만, 가부장적사회 분위기 때문에 간통행위는 여성 인물들의 육체적, 정신적 질병을 가꿈 유발시키기도 한다.

여성은 간통을 한 이후 결국 우울해지거나 히스테리컬해진다. 그 당시 사회 분위기처럼 폰타네의 여성 인물들의 혼외 스캔들은 도덕적 질서에 대한 용서할 수 없는 위반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간통녀들은 극단적인 처벌행위가 무서워서 외적으로는 절제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 당시 남성의 간통은 자연스럽고 이해 될 수 있는 즉 남성적인 힘의 상징이기도 했다. 사회의 분위기 때문에 에로틱한 밀회는 외진 장소에서 이루어진 것이 일상사였다. 이런 사회적 제약 속에서도 여성이 간통을 통해서 성취한 것은 그 간통이 비밀로

부처지지 않고 세상에 공개됐을 때이다. 그래서 멜라니 역시 자기의 간통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순간부터 자기는 오히려 해방되었다고 느낀다. 간통이후에 멜라니는 자기 배우자와 헤어지고 나서 육체적, 심리적 고통도 잘 극복하면서 자의식을 갖고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해 나간다. 말하자면 그녀는 간통을 통해서 진정으로 해방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결국 여성들의 간통은 배우자와의 개인적인 갈등에서 비롯되지만 그들은 그것을 자기들의 정체성 추구의 길로 인식한다. 멜라니의 경우 그녀는 남편이 자기의 개성을 인정하지 않는 결과로 인해서 간통을 하지만, 그녀의 간통은 곧 불행한 결혼에서 탈출하려는 개인적인 사건이기도 하고 동시에 사회적인 인습에 저항한 파괴적인 열정적인 행동이기도 하다.

소설 <에피 브리스트>에서도 폰타네는 에피브리스트를 통해 간통을 직접적이 아닌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²⁶⁾ 프란치스카(Franziska)와 에피(Effi)가 중세이야기를 듣고 느낀 것은 사회질서의 버팀목인 결혼생활에서 일부일처제가 유지되고 있는 사회에서, 여성의 간통은 규범을 어기는 일이기 때문에 엄하게 처벌되었다는 것이다.²⁷⁾ 19세기에 여성의 간통은 하나님의 의지를 해치는 것이고, 지상에서는 남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공공도덕을 위반한 죄로 심지어 사형을 당하기도 하였지만, 폰타네는 헨리의 지적대로 “간통을 통해 그녀가 지금까지의 삶을 포기도 불사하고 새로운 모험적인 길을 택해서 나아가는 적극적인 모습²⁸⁾”을 형상화하고 있다.

작품 <페토프 백작(Graf Petöfy)>에서처럼 <에피 브리스트>에서도 결혼-이혼의 과정은 부부간의 부족한 의사소통에서 생겨나고 있다.²⁹⁾ 그들은 부부간에 소통부재로 인해 심지어 에피의 남편 인스테텐(Instetten)은 자기

26) Theodor Fontane: a.a.O., S.139.

27) Ingrid Mittenzwei: Die Sprache als Thema. Untersuchungen zu Fontanes Gesellschaftsroman. Bad Homburg 1970. S.21.

28) Dieter Henrich: Identität-Begriffe, Probleme, Grenzen. In: Odo Maquard/ Karlheinz Stierle (Hrsg). München 1979. S.136.

29) Theodor Fontane: a.a.O., S.240.

어머니 루이제(Luise)의 중개로 그나마 의사소통을 한다.³⁰⁾ 폐퇴피는 자기 부인의 간통에 대해 침묵하지만 인스테텐은 자기 부인 에피가 그녀의 정부인 크람파스(Crampas)와 주고받은 연애편지를 읽고 나서, 자기 부인에게 이혼하자고 말한다. 어린 시절부터 위협한 모험에 대한 동경심과 불안감 사이에 흔들리는 에피는 결혼 이후에 감정의 공허함으로 인해 신경쇠약 증세를 보이기도 한다. 그래서 그녀는 부부간의 의사소통의 부재로 인해서 더욱 더 무기력하고 무감각한 공허함에 시달린다. 간통으로 인해 이혼 후에 친정 집에 그녀가 돌아 올 때, 친정어머니가 그녀를 문전박대 하자 그녀는 무거운 중압감에 시달린다. 그럼에도 에피는 어머니와 수다 떨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느낀다. 그녀는 이혼 후 마음이 괴로워도 내색하지 않고 ‘본능에 충실한 자연아(Naturkind)’처럼 행동한다.³¹⁾ 그래서 그녀는 자주 자기의 본성과 사회적 도덕사이에서 갈등을 느낀다. 그녀의 간통은 상대와의 열정적인 사랑에서 생긴 것도 아니고 더더욱 성적 불만족에서 생긴 것이 아닌 남편과의 의사소통 부재에서 생겨난 것이다. 그녀는 때로 자기남편한테 어린아이 취급을 받거나 남편의 대상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그녀는 의사소통 부족과 지루함에 시달린 상황에서도 남편이 자기한테 어떤 술책을 쓰려고 하는지 정확히 알고 남편을 역으로 이용하기 위한 전략을 사용한다.³²⁾

남편 인스테텐이 에피를 교육시키기 위해 기만술을 이용하면서 중국인 괴물을 끼워 넣지만 정부(情夫)인 크람파스(Crampas)한테서 남편이 의도적으로 에피를 무섭게 하기 위해 그런 짓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 그녀는 그것을 한낱 자기를 길들이기 위한 교육수단이자 도덕설교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심지어 그녀는 “이제 나는 불안에서 해방되고 싶다. 나는 귀족임이 자랑스럽지 않다³³⁾”라고 남편에게 항의조로 말하기까지 한다. 그녀는

30) Theodor Fontane : a.a.O., S.242.

31) Theodor Fontane : a.a.O., S.245.

32) Theodor Fontane : a.a.O., S.248.

33) Theodor Fontane : a.a.O., S.243.

이 장면에서 대상물이 아니라 오히려 선제적으로 행동하는 적극적인 주체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남편에 대한 그녀의 감정 폭발의 시작은 일종의 해방의 시작이나 다름없다. 남편의 태도와 사회적 분위기가 마음에 들지 않자 그녀는 사회와 그녀의 본성 간에 모순이 있음을 느낀다. 그래서 나이 30세가 안된 채 죽어가는 에피는 회귀를 통한 해방을 추구한다. 그녀는 사회적인 강요, 종교적인 도그마 등을 극복하려고 애쓴다.³⁴⁾ 자연스런 상태로의 회귀를 통해서 그녀는 자주권을 획득하고 결국 자유를 얻는다. 결혼생활을 하면서 포메른 지방의 소도시의 황량함과 지루함에 싫증을 느낀 에피는 그녀의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휩싸여 자기와 어울리지 않는 분위기에 살아간다. 그래서 그녀는 자기를 에워싼 낯선 것에 반응을 보이기 위해 간통을 한다. 도덕율을 위반한 그녀는 모험심을 좋아한 그녀답게 자기의 지식과도 떨어져 살면서 간통의 죄책감도 갖지 않고 사회로부터 이탈되어 살아간다. 심지어 그녀는 여성들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이 강요받은 사회의 덕에 대해 구역질을 느끼기도 한다.

그동안 외로움과 비좁음에 시달린 그녀는 “깜빡이는 공원에서 해방의 감정이 되돌아오고 있구나. 평온함! 평온함이 정말 좋구나.³⁵⁾”라고 외치면서 자연 상태의 넓은 곳과 하나가 되면서 ‘자연아’로서 새로운 자아를 찾아 자기의 정체성을 구현하고자 한다. 에피가 자기 남편에게 한 거짓말은 여성의 생태적인 것이 아닌 사회적 인습에서 살아남기 위험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소위 여성의 비도덕성, 거짓말 등은 남성 중심의 사회적 질서에서 뛰쳐나오려는 저항의식의 발로이지 결코 생득적인 것과는 무관함이 그녀에게 나타나고 있다.³⁶⁾

34) Michael Balint : Angstlust und Regression. Hamburg 1972. S.46.

35) Theodor Fontane : a.a.O., S.250.

36) Vgl. Ulrike Hanraths: Bilderflachten. Weiblichkeitsbilder in Fontanes Romanen und im Wissenschaftsdiskurs seiner Zeit. Diss., Düsseldorf Uni. Mönchengladbach 1991. S.144.

5. 간통과 상징 그리고 정체성

폰타네의 주요 관심사는 무엇보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이다. 그에 있어서 이 인간은 정치 사회적 상태와 질서의 변화과정에 있는 시대의 힘과 마찬가지로이다.³⁷⁾ 때문에 그의 비판은 프로이센 귀족에 대한 비판으로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회 계층을 겨냥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말하자면 그의 여성인물들은 사회적, 이념적 비판의 대변자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³⁸⁾ 그의 여성들은 여성의 간통을 금기시한 사회에서 사회의 요구에 반하는 행동을 감행하고 있는 다양한 모습들을 통해 그 당시 사회적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³⁹⁾ 그는 이런 여성들을 통해 가사노동으로부터 여성의 해방과 여성의 인간적 잠재력을 표출할 기회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빌헬름시대의 이중 도덕의 역사적 현실 즉 결혼, 이혼 그리고 간통의 문제를 통해 남성중심의 사회적 규범과 도덕적 질서에서 이탈하여 새로운 자아를 찾아나서는 여성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루크만이 사회적 인식론에서 자아는 내부주관적인 반영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하듯⁴⁰⁾, 폰타네의 간통 소설들 역시 옛날 호경기 시대의 삶의 넓은 스펙트럼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인습적, 규범적 성역할을 대변하고 있는 간통녀들인 멜라니와 에피, 그리고 세실이 그들의 이혼 이후에 사회에서 소외되어 가지만 남자들은 벌을 받지 않는데서 보듯, 폰타네는 여성의 간통에 대해 용인되지 않는 사회 분위기를 묘사하기 위해 여성의 간통을

37) Paul Bökmann : Der Zeitraum Fontanes. In: Der Deutschunterricht. Hrsg. von Robert Ulschöfer, Jg. 11. Stuttgart 1959. S.82.

38) Barbara Kienbaum : Die Frauengestalten in Theodor Fontanes Berliner Romanen. Diss., Michigan 1978. S.8.

39) 귀족여성의 대표자들은 Victorie von Carayon, Cécile, Effi가 있고, 시민계급에 속한 여성들로는 Mélanie, Jenny Treibel 그리고 Corinna Mittelmann이 있고, 노동계급의 여자들로는 Lene, Frau Dörn, Stine 그리고 과부 Pittelkow가 있다.

40) Thomas Luckmann : Persönliche Identität, soziale Rolle und Rollendistanz. In: Odo Marquard/Karlheinz Stierle(Hrsg.): Identität. München 1979. S.300.

직접적이 아닌 상징을 통해서 형상화 하고 있다.

때문에 폰타네는 여성의 간통이나 섹스를 암시의 형태로 묘사하고 있다. 예컨대 세실에서 “이곳저곳 여름정원들과 여흥을 즐기는 곳이 등장하고, 또 리어가 한 대가 지하실 입구에 있고, 병(Flaschen)들이 흩어져있는 것⁴¹⁾”은 곧 세실의 은폐된 에로틱한 특성을 상징하고 있다. 이어서 “소나기 무더위”가 또한 강조되면서 “사람들은 비좁은 장소에서 나와 더 넓은 장소로 나아가는 데, 그 뒤에는 승리의 기둥이 절반은 유령처럼 나타나고 있다⁴²⁾”고 한 부분이 등장하고 있다. 남성의 성기를 상징한 “승리의 기둥”을 보고 세실은 갈등을 느낀다. 옛날에 군인이었던 아르노(St. Arnaud)를 연상시킨 군인적, 남성적 힘을 상징한 승리의 기둥은 신비적-마신적 여성다움의 장소를 상징한 브로켄산을 통해서 대체된다. 때문에 그녀는 한편으로 이 기둥에 대해 관심을 갖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거리를 두기도 한다. 그녀는 본능에 따르려고 하면서도 본능과 일정부분 거리를 두기도 한다. 고돈(Gordon)이 그녀의 손을 잡자 그녀는 그가 속으로는 좋으면서도 그 순간 그에게서 벗어나려고 한다.

한편 여성의 섹스나 간통은 남성의 통제에서 벗어나려는 여성의 억제할 수 없는 욕구에 대한 태고적 불안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⁴³⁾ 세실의 관능미는 남성들의 성적 판타지의 전형적인 생산품이자 동시에 여성에 대한 남성 자신의 사고방식의 투사물이기도 하다. 사회에서 남성에 비해 하위의 인물로 간주되고 있는 여성들에 의해 자행된 직접적인 간통이나 상상을 통한 간통은 가부장적 강요에 맞서는 저항형태로 표출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작품 <간통녀>에서도 보듯, 간통은 간통을 했다고 말하는 직접적인 형태의 고백이 아니라 사물이나 상징과 같은 간접증거를 통해서 암시적으로 드러난다. 남편 슈트라텐은 부인 멜라니의 간통녀 기질을 방에 걸린 틴트레

41) Theodor Fontane : a.a.O., S.270.

42) Ibid. S.270.

43) Dirk Mende : Frauenleben. In : Fontane aus heutiger Sicht. Hugo Aust(Hrsg), München 1980. S.195.

토(Tintoretto)의 그림에 나타난 상징을 보고 발견한다. 멜라니는 사회규범에 저항할 때 특히 남성에게 의해서 여성에게 가해진 도구화된 남성중심적 사고방식을 거부한다.⁴⁴⁾ 티토레니가 간통하고 있는 모습을 암시한 그림이 벽에 걸려있는데, 멜라니 역시 간통을 상징한 그 그림을 보고 간통으로 인한 양심의 가책을 느낀 나머지 그녀는 히스테리에 빠진다. 말하자면 그녀는 이 그림의 모습과 자신의 처지가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히스테리컬 해진다. 하지만 그녀는 히스테리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려고 하면서, 그 기회를 자기의 정체성 추구로 나아가는 출발점으로 삼는다. 그래서 그녀는 티토레이 그림의 상징물을 보고 숙명에 복종한 대상으로 폄하되는 것을 거부하고 오히려 개체로서 당당하게 인정받고자 한다.

의사가 정부(情夫)와 남편 사이에 갈등을 느낀 멜라니에게 로마의 나쁜 공기를 벗어나 낯선곳으로 여행을 떠날 것을 권유하자 그녀는 낯선 곳으로 여행을 떠난다. 그녀는 자기의 간통에 대해 “그것은 수치스럽지 않다. 나는 죄책감이 아니라 오히려 자긍심이 든다.⁴⁵⁾”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면서 주위를 의식하지 않고 독자적인 길을 택한다. 그녀는 두 번의 여행을 하는데, 한번은 브란덴부르크 강으로 가고, 또 한 번은 베니스로의 보트여행이다. 브란덴부르크 강은 조용하고 한가로운 반면에 베니스의 보트여행은 날씨가 꺾어서 배가 파산할 위험에 놓일 정도로 험난하다. 말하자면 브란덴부르크 물은 조용함을, 베니스의 거친 물은 간통 이후 엄습한 큰 불안을 상징하고 있는 셈이다. 그녀의 이 여행은 사회적 인습의 틀에서 벗어나 가부장적 사회에서 이탈하여 독자적인 정체성을 추구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녀의 이 여행은 곧 그녀의 반란의 시작을 의미하고 해방적 자의식의

44) Vgl. Sabina Becker: “Wiederhergestellte” Weiblichkeit, alternative Männlichkeit. Theodor Fontane Roman L'Adultera. In: Sabina Becker und Sascha Kiefer(Hrsg.). “Weiber Weiblich, Männer männlich. Der Geschlechtsdiskurs in Theodor Fontanes Romanen. Tübingen 2005. S.143.

45) Theodor Fontane: a.a.O., S.110.

출발을 상징한다. 그녀는 익숙한 환경에서 벗어나 낯선 곳으로 여행을 떠난 이후에 새로운 자아를 발견하고 사회로의 재진입에 성공한다. 여행을 통해서 시도한 자아구현은 그녀가 사회적인 규범을 주장하는 증권투자가의 독선적인 행동에 맞서 자신의 자의식적인 끈기로 맞설 때 가능하다. 그래서 그녀는 인습적인 결혼의 틀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정부인 루벤이 그녀 곁으로 다가온 이후에 부부간의 결혼생활은 파탄난다. 왜냐하면 제3자의 개입으로 인해 안정적인 결혼생활에 균열이 생기기 때문이다.

멜라니와 두 남자가 함께 만날 때, 갑자기 어딘가에서 공이 나타나는데 그녀가 그 공을 잘못 잡아 공이 옆으로 빠져나가자 정부인 루벤이 그 공을 잡아서 그녀에게 다시 전달하자 그녀는 그 공을 자기 남편에게 던졌는데 남편에게 맞지 않는다.⁴⁶⁾ 이것은 고전적인 프로이드적 의미에서 볼 때 잠재의식이 밖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루벤에게 그 공의 전달은 곧 루벤과 간통을 하고 싶다는 의미의 상징물이나 다름없다.

보트여행 이외에도 간통의 상징은 또 물이나 온실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다. “별들이 반짝거리면서 자기 주위를 맴돌면서 춤추고 있고, 보트가 조용히 서서히 이동하고 강물이 흐를 때⁴⁷⁾” 그녀의 심장은 두근거린다. 그녀는 자아구현을 위해 자신을 찾아 나서다 종려나무 집에 머무르는데, 이 종려나무 집은 에로틱한 욕구의 집합체로서 섹스와 간통을 상징한다. 아이러트의 지적대로⁴⁸⁾, 종려나무 집에 있는 온실은 괴테적인 친화력을 의미 할 뿐만 아니라 이국적인 것과 에로틱한 것이 섞여 성적 욕구의 집합체로 나타나고 있다. 간통의 장소인 이 온실 속에서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식물은 육욕(성욕), 고양된 삶의 충만함 그리고 비옥함을 암시할 뿐만 아니라 식물의 아름다움과 신비스러움 그리고 사회로부터의 분리를 상징하기도 한다. 따라서 주위세계

46) Ibid. S.120.

47) Ibid. S.122.

48) Heide Eiert: ‘_und mehr noch fast, wer liebt.’ Zeitschrift für deutsche Philologie 101. Berlin 1982. S.528.

와 동떨어져있는 공간인 이 온실은 시민적-남성적 질서의 영향권 밖에 있는 자연과 같은 것으로서, 결국 에피는 넓은 곳에서 죽어가면서 ‘자연인’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구현하고자 한다. 바꿔 말해 상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자연의 영역인 온실에서의 간통은 사회적인 인습에서 탈피하려고 하는 여성의 본능적인 힘의 발산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는 부인이 온실에서의 간통 후 남편 곁을 떠나면서 간통에 대해 죄의식이나 수치스러움을 느낀 것이 아니라 그녀가 “나는 당신과 헤어져서 편안하게 살고 싶다. 세상 사람들에게 나의 행동을 고백하고 싶다. 덕이나 자기변호 따위는 나는 신경 쓰지 않겠다.”⁴⁹⁾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자긍심과 명예스런 것으로 묘사되고 있는데서 확인 되고 있다.

간통은 주로 색정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한 온실에서 일어나는데 이때 폰타네는 실질적인 성행위를 직접적으로 묘사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드디어 어두움이 다가왔다. 큰 그림들이 천정에 걸려있었다.”⁵⁰⁾라고 간통장면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간통에 대한 이 상징을 통해 그녀가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끼고 자의식을 갖고 독자적으로 행동하려고 할 때, 그녀의 남편은 그녀가 성녀(聖女)처럼 정숙한 여자가 되기를 바라지만 그녀는 성녀역을 거절한다. 그녀는 자기 남편의 기대에 부응한 성녀가 아니고 오히려 간통녀이지만 자기가 간통을 했다고 해서 죄의식도 느끼지 않고 자기가 파멸해 간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그녀는 독자적인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하고 자신의 길을 혼자서 찾아다닌다.

후회보다는 자긍심을 갖고 간통을 한 그녀는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순진함과 외설스러움의 대립 즉 성모마리아와 창녀의 이미지를 지닌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다. 앞에서 잠깐 언급한대로 작품 <에피 브리스트>에서 에피의 남편이 그녀를 자기 방식대로 길들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중국어 유행’은 남성의 여성에 대한 욕망의 상징물로 쓰이고 있다. 남성우위의 사회 질서를 잠재적으로 위협하는 거친 본능의 소유자인 그녀의 잠재

49) Theodor Fontane: a.a.O., S.108.

50) Theodor Fontane: a.a.O., S.112.

적인 성욕은 남성 질서의 원초적인 자연스런 힘과 대립하고 있다. 에피는 그네처럼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대기 속으로 날아간다. 그녀는 “아! 아름답고 공기가 좋구나. 마치 내가 하늘로 날아간 것 같은 기분이 드는구나⁵¹⁾.” 라고 말하면서 삶을 즐거워하는 들뜸과 욕구의 충만 속에서 살아간다.

그녀에게 본능과의 친화는 야만적인 것이 아니라 남성중심의 인습에서의 탈피를 의미한다. “그녀는 아주 즐거워하면서 향기를 깊숙이 들이 쉬고 유채밭과 클로버 밭을 지나가거나 새처럼 날아서 종달새를 쫓아갔다.⁵²⁾” 라는 데서 보듯, 에피의 날아감(Fliegen)의 모습에서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다른 곳으로 움직이면서 행동하는 운동의 상징이 나타나고 있다. 그녀가 날아간다는 것은 기존 질서에 저항하면서 간통을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날아감과 간통은 상징적으로 서로 밀접하게 연계되어있다. 그녀의 날아감과 운동 그리고 간통은 곧 기존 사회질서에 대한 저항의 몸짓이나 다름없다. 바뀌 말해 남성중심 사회에서 남성이 여성의 행동을 제약하려고 하자 그녀는 날아가는데, 이 날아감은 남성중심의 질서에 대한 저항의 표출이다.

날아감 이외에도 키스나 옷 그리고 눈물 또한 정체성을 찾기위해 노력하는 간통의 상징으로 쓰이고 있다. 열정적으로 손등에 키스하는 것이나 옷을 통한 저항의 모습에서 간통에 대한 폰타네식의 전형을 볼 수 있다. 정부(情夫)가 “에피의 손에 뜨겁게 키스하자 그녀는 실신할 것 같은 느낌에 빠졌다.⁵³⁾”에서 보듯, 손등의 키스와 화려한 옷 역시 성적 정체성을 위한 투쟁 수단으로 쓰인 간통에 대한 상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어머니가 어린 시절부터 에피에게 단정히 옷을 입고 정숙하게 다녀야 된다고 말하곤 해서 그녀는 주로 푸른색, 흰색 무늬가 있는 옷과 반트는 재킷모양의 아마로 된 옷을 입고 허리띠를 허리에 차고 목은 넓은 옷을 입고 다녔지만 그것이 그녀는 늘 마음에 들지 않았다. 어머니처럼 남편 역시 그녀를 사회규범에 따르라고

51) Ibid. S.112.

52) Ibid. S.113.

53) Ibid. S.114.

말하면서 그녀에게 순진하고 귀족처럼 고상하게 행동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그녀는 이런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 그녀가 언뜻 보면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게 행동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녀는 간통을 할 때도 주로 이 옷을 입고 다니면서 남편이나 어머니의 말을 거절하고 남성 중심의 사회적 질서에 저항하면서 가부장적 신비화에서 해방되려고 한다.

나아가 단정한 옷을 통한 어린애다움과 에로틱한 요소의 결합이 여성을 사회적 역할에서 이탈하도록 조장하고 있다. 에피는 옷을 통해서 여성은 순수해야지 에로틱하게 보여서는 안 된다는 어머니의 요구를 내면화하는 것을 꺼린다. 그녀는 오히려 단정한 옷이 아닌 자기 스타일의 옷을 통해 사회의 규범에 저항하려고 한다. 어머니는 에피에게 단정한 긴 옷을 입고 섹시하게 보이지 않도록 하면서 딸의 행동을 억제하려고 하지만 그녀는 이를 거절한다.

에피가 한편으로 옷을 통해 순진한 어린아이처럼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옷을 입고 다니고, 또 다른 한편으로 남성들의 관심을 끄는 것을 피하기 위해 단정한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육체를 숨기고 욕정을 거절하려는 태도는 곧 그 당시 여성은 옷을 입을 때 여성의 덕목으로 단정한 옷을 입어야 하고 옷장도 화려하지 않아야 된다는 모습과 께를 같이 하고 있다. 폰타네는 에피의 옷을 통해 19세기 후반의 여성들의 억제된 성관념을 표현하고 있다. 그는 그 당시 어른들은 거짓말을 해도 허용이 되는 사회에 대해, 에피의 이 옷을 통해 사회의 위선을 폭로하면서 사회적 규범을 뛰어넘어 여성으로 하여금 자기의 정체성을 찾으려 하고 있다. 슈테판은 이와 관련하여 폰타네의 여성상은 ‘갈등적인 여성상⁵⁴⁾’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자의식이 강한 독립적인 여성 인물의 모습에서 갈등 상황이 아닌 확실한 자기 의도대로 정체성을 찾아다니는 적극적인 여성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가부장적 신비화에서 해방되려고 하는 에피는 욕정을 가진 사람이자 사회에 저항하는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녀는 결혼과 가정을 더 이상 여

54) Inge Stephan: Das Natürliche hat es mir seit langem angetan. a.a.O., S.120.

성들이 충성해야 될 자연스런 조직이나 도덕적 기관이 아니라 가변성 있는 사회적 기관으로 간주하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폰타네가 직접적 표현이 아닌 간통의 상징적인 표현을 통해 엄격한 규칙으로 여성의 행동을 제한한 가부장적 사회에 대해 비판 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⁵⁵⁾.

간통을 자랑스럽게 생각한 에피는 17세 때 결혼하여 25세 때 간통으로 인해 이혼 한 후에도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다. 그녀는 속으로 죄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회에서는 그녀가 죄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녀는 울고 만다. 그녀가 이혼 후 보호처를 찾기 위해 부모님에게 돌아가지만 부모님들이 냉정한 반응을 보이자 “그녀의 눈은 눈물로 가득 찼고 그 눈물을 쏟아내자 마음이 편안해졌다.⁵⁶⁾”라고 한데서 보듯, 그녀의 이런 눈물의 감정표출은 해방 과정의 시작으로 작동하고 있다. 사회 인습상 간통한 여성에 대한 경멸은 그녀에게 고통으로 이어져 신체적 반응으로 울음이 나온다. 사회의 강요된 죄의식에 그녀는 순응하지 않고 비록 자기가 간통을 했지만 끝까지 죄가 없다고 느낀다. 그럼에도 그녀는 육체적으로 히스테리컬 해져서 쇠락해 가는데, 그녀가 죽어갈 때 어머니가 그녀에게 “사랑하는 에피야! 너는 죽음 앞에서 아주 평온해 보이는구나.”라고 말하자 그녀가 “엄마! 그래요 저는 아주 평온해요⁵⁷⁾”라고 대답할 때 이것은 종말이 아니라 오히려 부활 즉 ‘자연인’으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구현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나 다름없다.

미텔만의 지적대로⁵⁸⁾ 폰타네는 남녀간의 대립속에서 여성은 자기구현을 시도하고 있고, 반대로 남성은 여성을 인습에 고정되어 있도록 강요하고 있지만, 결국 여성이 남성중심의 인습에서 탈피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평소 정신적 자유를 중시하고 정신적 자유가 침해 받는 것을 위협한 것으로 인식한

55) Vgl. Hugo Aust: Effi Briest oder Suchbilder eines fremden Mädchens aus dem Garten. In: Fontane Blätter 64.

56) Theodor Fontane: a.a.O., S.255.

57) Ibid. S.293.

58) Hanni Mittelmann: Die Utopie des weiblichen Glücks in den Romanen Th. Fontanes, Bern, Frankfurt/M, Las Vegas 1980. S.13.

폰타네는 다양한 인물들을 통해 그 당시 인습적인 사회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플레트가 “그의 여성들 가운데 해방된 여성은 없다.59)”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에피의 경우에서 보듯, 그녀는 가사노동에서 해방되려고 노력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인간적 잠재력을 펼칠 기회를 갖기 위해 고정된 성역할이나 사회적 인습에서 이탈하여 적극적으로 자아구현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6. 나가는 말

이상에서 필자는 폰타네의 작품들에서 여성의 간통은 인간심리학적, 생물학적이 아닌 사회역사적 측면과 연관이 있음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때문에 필자는 폰타네가 억압적인 사회적 규범들과 사고방식들을 여러 작품들에서 어떻게 형상화 하고, 또 어떤 목적으로 이런 것을 여성들의 간통과 연계시켜 묘사하고 있는지를 살펴 본 결과, 지금까지 폰타네 작품들에서 여성들의 간통은 생물학적이 아닌 사회적 요인에 기인하고, 그 간통은 여성들의 정체성 추구하고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우선 그들의 간통원인은 남성들로 인한 내부적인 갈등에서 출발하고 있다. 여성들은 특히 자기의 바람과 사회적 현실과의 불일치가 생겨나 결혼 생활에서 국외자로 내몰리면서도 의사소통의 부재를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답답하고 좁은 현실에서 탈출하기 위해 간통을 하지만, 여성들은 오히려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그 간통사실이 외부에 알려짐으로써 해방이 되었다고 느끼고, 남성의 부족한 배려심과 이해부족을 혼외의 간통을 통해 극복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찾고자 한다. 따라서 폰타네의 작품들에서 여성들이 간통

59) Bettina Plett : Frauenbilder. Männerperspektiven und die fragwürdige Moral. In: Fontane Blätter. 68. Hrsrg. Hanna Delf von Wolzogen, Helmuth Nürnberger. 1999. S.121.

을 한다 할지라도 정부(情婦)와 성관계는 하지 않고 여러 가지로 암시만 되고 있는데, 이것은 폰타네 특유의 서술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폰타네는 의도적으로 간통의 에로틱한 밀회가 온실과 같은 외진 장소에서 일어나도록 묘사하고 있다.

폰타네 작품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여성들이 파트너와의 의사소통 부족이나 배려심 부족으로 인해 좁은 공간에서 뛰쳐나와서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국외자 취급을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를 극복하여 성공적으로 사회에 재진입하는 것으로 형상화 되고 있는 점이다. 그래서 여성들은 사회적 인습에 불과한 결혼생활 중에 해방적 자아구현과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낙천적 미래관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때문에 폰타네의 여성인물들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체념한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새로운 관계에 적응하려는 의지가 강한 모습으로 자기 정체성을 위해 적극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인물들로 묘사되고 있다. 여성들은 간통을 통해 남성욕망의 신비화된 궁극적 대상으로 물신화한 사회에 대해 저항하면서 육체적, 심리적 고통을 극복하고 그 기회를 새로운 자아를 찾아나서는 돌파구로 활용한다. 바꿔 말해 여성들은 여성 억압적 사회체제에서 개인적인 바람과 사회의 강요적 요구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날 때 자기의 확고한 자의식과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남성의 간통은 인정되고, 여성의 간통은 허용되지 않은 사회에서 당당하게 간통을 통해 정체성을 추구하고자 한다.

결국 폰타네가 19세기의 사회적 인습과 다르게 여성인물들을 자아구현을 위해 노력하는 긍정적인 여성상으로 묘사하고 있는 점을 볼 때, 폰타네는 자의식이 강한 새로운 여성상을 통해 현대적 여성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 당시 작가들에게서 찾아보기 어려운 ‘진보적인 작가’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1차문헌

Fontane, Theodor : Romane und Erzählungen und Gedichte. 2. Bd. München 1971.

2) 2차문헌

Allgemeine deutsche Real-Encyclopädie für die gebildeten Stände. Brockhaus. Leipzig 1865.

Allgemeines Landrecht für die Preußischen Staaten mit Erläuterungen von Rehbein und O.Reincke. 4.Bd., Berlin 1894.

Ariés, Philippe/Berlin, Andre(Hrsg): Die Masken des Begehrens und die Metamorphosen der Sinnlichkeit. Frankfurt/M. 1986,

Aust, Hugo : Effi Briest oder Suchbilder eines fremden Mädchens aus dem Garten. In : Fontane Blätter 64. 1997. S.66~88.

Balint, Michad : Angstlust und Regression. Hamburg 1972.

Becker, Sabina : “Wiederhergestellte” Weiblichkeit, alternative Männlichkeit. Theodor Fontane Roman L’Adultera. In: Sabina Becker und Sascha Kiefer(Hrsg.). “Weiber Weiblich, Männer männlich. Der Geschlechtsdiskurs in Theodor Fontanes Romanen. Tübingen 2005. S.143.

Borscheid, Peter Ehe, Liebe, Tod. Zum Wandel der Familie, der Geschlechts und Generationsbeziehungen in der Neuzeit, München 1983.

Bökmann, Paul : Der Zeitraum Fontanes. in : Der Deutschunterricht. Hrsg. von Robert ulschöfer, Jg. 11. Heft5. Stuttgart 1959. S.59~81.

Bumke, Joachim : Höfische Kultur, Literatur und Gesellschaft im hohen Mittelalter. München 1990.

Croner, Else : Fontanes Frauengestalten. Langensalza 1931.

Dieter, Heimrich : Identität Begriffe, Probleme, Grenzen. In: Odo Marquard/ Karlheinz Stierle(Hrsg.) München 1979.

Eilert, Heide : “-und mehr fast, wer liebt’ : Zeitschrift für deutsche Philologie” 101. Berlin 1982.

Erler, Gottfried : Fontanes Briefe. Berlin und Weimar. Bd.2. 1968.

Fritz, Martini : Deutsche Literatur im bürgerlichen Kealismus 1848-1898, Stuttgart,

1974.

Hanraths, Ulrike : Bilderflachten, Weiblichkeitsbilder in Fontanes Romanen und im Wissenschaftsdiskurs seiner Zeit. Diss. Düsseldorf Uni. Mönchengladbach 1991.

Helmuth, Nürnberger : Theodor Fontane in Selbstzeugnissen und Bilddokumenten, Hrsg von Kurt Kusenberg, Hamburg 1968.

Kienbaum, Barbara : Die Frauengestalten in Theodor Fontanes Berliner Romanen. Diss., Michigan 1978.

Klaus Matthias : Theodor Fontane – Skepsis und Güte. In : Jahrbuch des Freien Deutschen Hochstifts 1973.

Liebrand, Klaudia : Das Ich und die Anderen. Freiburg/Br 1990.

Luckmann, Thomas : Persönliche Identität, soziale Rolle und Rollendistanz. In: Odo Marquard/Karlheinz Stierle. Hrsg. München 1979.

Mende, Dirk: Frauenleben. In : Fontane aus heutiger Sicht. Hugo Aust(Hrsg), München 1980.

Mittelman, Hanni : Die Utopie des weiblichen Glücks in den Romanen Th. Fontanes. Bern. Frankfurt/M. Las Vegas 1980.

Mittenzwei, Ingrid : Die Sprache als Thema. Untersuchungen zu Fontanes Gesellschaftsromanen. Berlin. Zürich 1970.

Plett, Bettina: Frauenbilder. Männerperspektiven und die fragwürdige Moral, In : 'Fontane Blätter 68. Hrsg. Haana Delf von Wolzogen, Helmuth Nürnberger 1999. S.118~129.

Stephan, Inge : Das Natürliche hat es mir seit langem angetan. Zum Verhältnis von Frau und Natur im Fontanes Cecile. In: Natur und Natürlichkeit. Hrsg. Reinhold Grimm/Jost Hermand. Athenäum 1981.

Abstract

Adultery and Identity in the works of Theodor Fontane

Park, Dae-hwan*

Theodor Fontane (1819-1898) was born as a pharmacist's son and later worked as a journalist and later became a writer. He criticizes the value system and moral system of the late 19th century.

Therefore, in view of this, I believe that adultery is not related to the biological aspect, but that it is related to the social phenomenon of the time, and that adultery does not conform to reality through the active actions of women who deviate from society beyond simple sexual desire. By resisting, I tried to find out that they are trying to realize their self, that is, to pursue their identity.

Women are jumping out of the confined spaces because of their lack of communication or lack of consideration with their partners, endeavoring to reenter society. Through adultery, women seek out a new self, resisting a society that has been fetishized as the mysterious and ultimate object of male desire.

In this sense, Fontane is a rare "progressive writer" at the time.

Key Words : Adultery, self-implementation, self-determination, identity

* Chosun University

<필자소개>

이름: 박대환

소속: 조선대학교 독일어문학과

전자우편: dhapark@Chosun.ac.kr

논문투고일: 2019년 6월 18일

심사완료일: 2019년 8월 20일

게재확정일: 2019년 8월 26일